

신외환전산망(FEIS 2.0) 구축개요

1. 추진 배경

- 외환전산망은 외환위기 직후 **외환거래 정보**를 신속하게 **수집**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국은행내 만들어진 정보시스템임
 - 동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는 한국은행은 물론 정부, 금융감독당국 등이 외환거래 동향을 면밀히 **모니터링**하고 시장안정 등을 위한 **대책**을 **강구**하는 데 널리 활용되어 왔음
- 구축이후 대내외 금융여건 변화에 맞추어 **정보내용**을 **확충**하고 기기 성능과 기능면에서 미흡한 **전산인프라**도 전면적으로 **개선**할 필요성이 높아짐

2. 개선된 내용

- **(정보 이용 편의 제고)** **첨단 IT기술**을 **접목**하여 이용자가 훨씬 신속하고 수월하게 정보를 수집·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
- **(정보의 질과 양을 확충)** **외환거래 정보**를 보다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**세분화**하는 한편 한국은행이 생산하는 **통계정보**와 주요 **국제금융시장 정보**를 함께 볼 수 있도록 개선
- **(시스템의 고도화)** 개인정보 보호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시스템 장애에 대비하여 **안전장치**를 마련

3. 기대 효과

- 외환·금융시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됨은 물론 각종 **위험요인**의 **조기 파악** 및 **적기 대응** 역량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

<참고>

신외환전산망(FEIS 2.0) 구조

- 신외환전산망은 외환거래법규상 외환정보집중기관인 **한국은행**이 국내 보고 기관,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**보고서 및 통계정보**를 집중하여 처리한 후 **이용 기관에 제공**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정보시스템임
 - 보고기관은 외환거래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(2015.1월 기준 818개)이며, **보고서**는 수출환어음매입 등 총 **106종**으로 구성되어 있음
 - 신시스템에 새로 추가된 정보는 BIS, IMF, World Bank가 제공하는 주요 **국제금융시장 정보**(국제수지, 외채, 국제상업은행 통계 등)와 한국은행이 생산하는 **통계정보** 등임
 - **이용기관**은 한국은행, 정부, 금융감독당국 등 9개 기관으로서 외환전산망을 통하여 시장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는 물론 각 기관의 **고유 정책 수행**에 필요한 **기초자료**로 활용하고 있음
 - 또한 일부 외환거래의 경우 고객이 거래은행을 지정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**거래외국은행 지정시스템**도 **운영**하고 있음

